

Baudelaire 시의 상상 세계 (Ⅱ)

文 忠 誠*

목 차	
I. 머리말	IV. 상승 혹은 떠남의 시학
II. 어머니 혹은 상실의 시학	V. 맺음말
III. 흡혈귀 혹은 지옥의 삶	

I. 머 리 말

Baudelaire는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과 육의 이원 세계를 갈등과 모순 속에서 조화시켜 나가는 그의 시 세계의 초석으로 삼았음을 드러내준다. 6세때 아버지를 여윈 그는 일년 뒤에 어머니의 개가로 기숙학교로 가게 되었다. 그는 고독한 실존의 유년기를 좌절에서 회복과 초월의 세계를 꿈꾸며 살았다.

Sentiment de *solitude*, dès mon enfance. Malgré la famille, —au milieu des camarades, surtout, —sentiment de destinée éternellement solitaire.

Cependant, goût très vif de la vie et du plaisir.¹⁾

《Mon coeur mis à nu》에서 그가 고백하듯이 ‘영원히 고독한 운명의 느낌’과 ‘삶과 쾌락에 대한 아주 강렬한 욕구’는 그의 이원 세계의 두 뿌리로서 앞의 것은 어머니에서 비롯되는 낙원 상실의 고통과 그 회복을 꿈꾸는데, Marie Daubrun과 Madame Sabatier와의 사랑의 시편들로 대표되며, 뒤의 것은 Jeanne Duval에 바쳐진 시편들을 낳는다.

1) Baudelaire, *Oeuvres complètes I*. Gallimard, 1975. p.680.

* 人文大 助教授

우리는 이 글에서 Baudelaire의 생애를 통해 그에게 영향을 준 어머니를 비롯해서 Jeanne Duval, Marie Daubrun, Madame Sabatier 등이 그의 시에 있어서 어떠한 상상 세계를 형성케 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그의 연애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상상 세계를 이해하는데 있다.

앞서 말한 그의 이원세계는 그것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그의 내부에 함께 있으면서 어느 하나가 승할 때 다른 하나는 보족적인 모습으로 있다. 그러므로 그의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두 세계를 하나로 화해시키려 하는 끊임없는 시도로 파악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는 영과 육에서 벗어지는 사랑의 세계를 따로 추구한 것이 아니며, 이 두 세계의 조화로운 화해를 꿈꾸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음에서 오는 고뇌와 절망이 그를 더욱 비극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은 여러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 속에 생성된 사랑은 하나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운문시 《L'invitation au Voyage》에서 되풀이 노래부르는 질서(ordre), 아름다움(beauté), 사치(luxe), 고요함(calme) 그리고 쾌락(volupté)의 세계가 그가 꿈꾸는 사랑과 죽음의 상상 세계임을 밝혀 나갈 것이다.

Là, tout n'est qu'ordre et beauté,

Luxe, calme et volupté.²⁾

II. 어머니 혹은 상실의 시학

Baudelaire는 어머니를 주제로 한 시를 한 편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영원한 모성과 신성의 젖줄을 물고 있으며, 어머니를 의부 Aupick에게 빼앗긴 상실감을 키워나가면서, 그가 사귀게 된 여인들에게서 어머니의 두 모습을 찾아내게 되는데 이같은 지적 모험은 그의 상상 세계에 명시편들을 남겨 놓았다.

어린 시절에 이미 금이 간 넋을 지니게 된 그의 모습은 너무 참담하게 드러난다.³⁾

Moi, mon âme est fêlée, et lorsqu'en ses ennuis

Elle veut de ses chants peupler l'air froid des nuits,

Il arrive souvent que sa voix affaiblie⁴⁾

2) Ibid., p.53.

3) J.-P. Sartre, *Baudelaire*, Gallimard, 1963, pp.17~26. 특히 다음 구절을 참고할 것.

(...) En novembre 1828 cette femme tant aimée se remarie à un soldat; Baudelaire est mis en pension. De cette époque date sa fameuse 《fêlée》. Crépet cite à ce sujet une note significative de Buisson: 《Baudelaire était une âme très délicate, très fine, originale et tendre, qu'il n'avait pu supporter: le second mariage de sa mère. Sur ce sujet, il était inépuisable et sa terrible logique se résumait toujours ainsi: 《Quand on a un fils comme moi -comme moi était sous-entendu-on ne se remarie pas.》(...)》

4) Baudelaire, op. cit., p.72.

그러므로 그의 시적 상상력은 이 잃어버린 어린 날을 그의 넋 속에서 노래 불러 회복시키고자 한다.

Je n'ai pas oublié, voisine de la ville,
 Notre blanche maison, petite mais tranquille;
 Sa Pomone de plâtre et sa vieille Vénus
 Dans un bosquet chétif cachant leurs membres nus,
 Et le soleil, le soir, ruisselant et superbe,
 Qui, derrière la vitre où se brisait sa gerbe,
 Contempler nos diners longs et silencieux,
 Répandant largement ses beaux reflets de cierge
 Sur la nappe trugale et les rideaux de serge.⁵⁾

교외에 있는 자그마한 하얀 집, 저녁 햇살 부서져내리는 때의 눈부신 분위기는 어린 시절의 그를 되찾아주고 나아가 거녀(La géante)와의 삶을 꿈꾸게 한다. 그는, 옛날, 자연이 힘찬 기운에 넘쳐 끔찍한 아이를 날마다 배던 그 시절에, 젊은 거녀 곁에서 음탕한 고양이처럼 살면서 그녀의 육체와 넋과 함께 꽃피어나고 무서운 놀음 속에 무럭무럭 자라남을 보았으며, 사랑의 검은 불꽃이 그녀 가슴 속에서 타오름을 그녀 눈동자에 어리는 축축한 안개를 보며 짐작하기도 하고, 그녀의 풍만한 몸, 거대한 무릎의 비탈 위를 기어다니다가 젖무덤의 그늘 아래서 평화롭게 잠들곤 한다.⁶⁾

이같은 관능적 상상력은 어머니와 천진무구의 삶을 살았던 어린 날에서 샘솟아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는 어머니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는 자신의 고립에서 고독한 실존을 발견하면서 자신을 타인으로 만들어 갈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⁷⁾ 이 어린 시절의 정신적인

5) Ibid., p. 99.

6) Ibid., pp. 22~23.

7) J.-P. Sartre, op. cit., pp. 20~22.

Déjà il pense est cet isolement comme une *destinée*. cela signifie qu'il ne se borne pas à le supporter passivement en formant le souhait qu'il soit temporaire: il s'y précipite avec rage au contraire, il s'y enferme et, puisqu'on l'y a condamné, il veut du moins que la condamnation soit définitive. Nous touchons ici au choix originel que Baudelaire a fait de lui-même, à cet engagement absolu par quoi chacun de nous décide dans une situation particulière de ce qu'il sera et de ce qu'il est. Délaissé, rejeté, Baudelaire a voulu reprendre à son compte cet isolement. Il a revendiqué sa solitude pour qu'elle lui vienne au moins de lui-même, pour n'avoir pas à la subir. Il a éprouvé qu'il était *un autre*, par le brusque dévoilement de son existence individuelle, mais en même temps il a affirmé et repris à son compte cette altérité, dans l'humiliation, la racune et l'orgueil. Désormais, avec un emportement buté et désolé, il s'est fait un autre: un autre que samère, avec qu'il ne faisait qu'un et qui l'a rejeté, un autre que ses camarades insoucians et grossiers; il se sent et veut se sentir unique jusqu'à la terreur. (...)

Chacun a pu observer dans son enfance l'apparition fortuite et bouleversante de la conscience de soi. (...)

외상은 어머니 콤플렉스로 드러나는데 이 영향을 받거나 이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의 이원성(Dualité)의 세계관이 형성된다.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신적인 외상을 입는다. 그것이 성적 억압에 의한 것인지, 권력에의 의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편안한 뱃속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연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유년기에, 대부분 5·6·7세 때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신적인 외상을 입는 것은 사실이다. 그 외상은 그것을 받은 인간의 세계 인식을 오히려 규정하여, 그의 인간성을 이룬다.⁸⁾ J.-P. Sartre는 인간은 저마다 자신의 유년기에 자의식의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출현을 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애착, 자기 편애를 생겨나게 해서 고행의 길을 걷게 한다는 뛰어난 분석을 보게 된다. 이 고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에게 있어 어머니에 대한 시적 상상력은 마침내 그의 삶을 전생(La vie antérieure)에 까지 확대시켜 나간다.

J'ai longtemps habité sous de vastes portiques
Que les soleils marins teignaient de mille feux,
Et que leurs grands piliers, droits et majestueux,
Rendaient pareils, le soir, au grottes basaltiques.⁹⁾

그는 이처럼 관능과 무위로 살았던 전생의 지복을 꿈꾸는 것이다. 이 시에 나타나고 있는 그림같은 전생의 풍경에서 그는 옛날엔 바다의 태양이 수천의 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던 넓은 회랑에서 살았으며 그곳에서 저녁마다 곧곧하고 장엄하고 큰 기둥들이 마치 현무암의 동굴같은 아름다움의 상상세계를 우리는 만나게 되지만, 태양→불빛(feux)→저녁으로 이어지는 빛의 이미지는 두째 연의 바닷 물결의 이미지와 저녁빛이 뒤섞여 더 큰 신비로움을 만들어 내고, 세계와 마지막 연의 관능적인 일락의 세계는 발가벗은 노예에 둘러쌓여 그들의 시중을 받는 쾌락에 몰입하고 있지만 번뇌의 비밀은 이미 생겨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빛의 이미지와 물결치는 바다 이미지와 하늘의 그림자를 바다 위에 뛰놀게 하는 넉넉한 음악의 전능한 화음 등이 뒤섞인 이미지들인데, 그는 그곳이 자기가 살아온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물의 이미지로 모아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되지만, 그 순수성은 모성으로 확대된다. 나아가서 이런 시적 메타포어는 현실로 돌아와서도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은 떠남을 꿈꾸게 하는 강렬한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Jeanne Duval에게 바쳐지는 《Parfun exotique》, 《La cheulure》, 《Avec ses vêtements...》, 《Le Serpent qui danse》, 《Remords posthume》, 《Le Chat (XXV)》, 《Une charogne》, 《De profundis clamavi》, 《Le Vampir》, 《Le Possédé》, 《Un Fantôme》, 《Je te donne ces vers...》, 《les Bijoux》, 《Le Léthé》, 《Chanson d'après midi》 등의 시편들과 Marie Daubrun에게 바쳐진

8) 김현, 韓國文學의 位相, 文學과 知性社, 1977, p. 42.

9) Baudelaire, op. cit., p. 17.

La Géante에 대해서는 金鵬九의 著, 상징주의 文學論, (民音社, 1982.) pp. 58-64 참조할 것.

《le Poison》, 《Ciel brouillé》, 《Le Beau navire》, 《L'Invitation au voyage》, 《L'Irréparable》, 《Chant d'automne》, 《Causerie》, 《A une madone》 등의 시편들과 Madame Sabatier에게 바쳐진 《Tout entière》, 《Que diris-tu ce soir...》, 《Le Flambeau vivant》, 《Réversibilité》, 《Confession》, 《L'Aube spirituelle》, 《Harmonie du soir》, 《Le Flacon》, 《A celle qui est trop gaie》, 《Semper eadem》 등의 시편들에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들은 다양해 보이지만 한 마디로 줄여 말해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를 잃어버린 시인의 정신 세계의 황량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통설로 굳어져 있지만 검은 비너스(Vénus noire)로 불리우는 Jeanne Duval은 지옥의 동반자, 흰 비너스로 불리우는 Madame Sabatier는 천국의 동반자로서의 애인이며 이 둘 가운데 지상의 동반자로서 Marie Daubrun이 자리하고 있다.¹⁰⁾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리 Jeanne Duval편의 시들이 관능적 성애에서 빚어지는 사랑, 증오, 저주와 관능을 통한 현실 도피들이 주조를 이룬다 할지라도, 이와는 달리 Madame Sabatier편이 그녀를 수호천사, 뮤즈, 마돈나로 떠받들고 천국을 지향하는 정신적인 세계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Marie에 대한 사랑이 지상의 평화롭고 감미로운 세계를 펼쳐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영과 육, 천국과 지옥, 이상과 현실 등 이원 세계의 모순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실과 회복의 변증법적인 상상 세계를 드러내 주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모성의 상실은 어머니를 성녀와 석녀로 파악하게 되고, 모성의 회복은 그의 사랑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는 그가 사랑하는 여인들을 모두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억지 사랑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가 쓴 명시편들이 이같은 사실을 증거하게 됨을 우리는 뒷장에서 다룰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그는 시적 상상 세계를 그가 사랑한 여인들에게서 숙련시키고 확장시켜 나갔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처럼 신과 사탄을 향한 때를 같이 한 영과 육의 두 갈망을 지녔으므로 해서 그는 모순에 고통받고 조화를 위해 고통받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Il y a dans tout homme, à toute heure, deux postulations simultanées, l'une vers Dieu, l'autre vers Satan.

L'invocation à Dieu, ou spiritualité, est un désir de monter en grade; celle de Satan, ou animalité, est une joie de descendre. C'est à cette dernière que doivent être rapportés les amours pour les femmes et les conversations intimes avec les animaux, chien, chats, etc.

Les joies qui dérivent de ces deux amours sont adoptées à la nature de ces deux amours.¹¹⁾

J.-P. Sartre는 이같은 명시성에 대해 회복에의 노력일 따름이라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스스로를 회복하고, 본다는 것은 자기 소유화하는 것이므로, 스스로를 보는 일임을 지적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타인인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했고, 그의 삶은 이같은 좌절의 역사에

10) 金鵬九, 보들레에르, 文學과 知性社, 1977, pp.416~417. 참조.

11) Baudelaire, op. cit., pp.682~683.

다름아니라고 꼬집기도 한다.¹²⁾

L'attitude originelle de Baudelaire est celle d'un homme penché. Penché sur soi, comme Narcisse. Il n'y a point chez lui de conscience immédiate qui ne soit transpercée par un regard acéré. Pour nous autres, c'est assez de voir l'arbre ou la maison; tout absorbés à les contempler, nous nous oublions nous-mêmes. Baudelaire est l'homme qui ne s'oublie jamais. Il se regarde voir; il regarde pour se voir regarder; c'est sa conscience de l'arbre, de la maison qu'il contemple et les choses ne lui apparaissent qu' au travers d'elle, plus pâles, plus petites, moins touchantes, comme s'il les apercevait à travers une lorgnette. Elles ne s'indiquent point les unes les autres, comme la flèche montre la route, comme le signet montre la page, et l'esprit de Baudelaire ne se perd jamais dans leur dédale. Leur mission immédiate est au contraire de renvoyer la conscience à soi. «Qu'importe, écrit-il, ce que peut être la réalité placée hors de moi, si elle m'a aidé à vivre, à sentir que je suis et ce que je suis»...¹³⁾

Sartre의 날카로운 이 분석은 Baudelaire의 여러 시편들에 나타나며, 그의 상상 세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Une nuit que j'étais près d'une affreuse Juive,
Comme au long d'un cadavre un cadavre étendu,
Je me pris à songer près de ce corps vendu
A la triste beauté dont mon désir se prive.¹⁴⁾

창녀인 유태계집 Sarah와 정사를 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그는 사랑하는 또 하나의 창녀 Jeanne Duval을 목마르게 그리워한다.

Je me représentai sa majesté native,
Son regard de Vigueur et de grâces armé,
Ses cheveux qui lui font un casque par fumé,
Et dont le souvenir pour l'amour me ravivre.¹⁵⁾

이같은 상상 세계는 Baudelaire시학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가 하는 행위는 시적 오브제를 통해 상상력을 훈련해서 시의 재능을 연마·완성시키는 데 기여한다.¹⁶⁾ 이것을 Baudelaire 연구가들은 이미 매음(prostitution)의 시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12) J. -P. Sartre, op. cit., pp.30~32참조.

13) Ibid., pp.26~27.

14) Baudelaire, op. cit., p.34.

15) Idem.

16) 金鵬九외, 상징주의 文學論, 民音社, 1982, pp.53~57참조.

L'amour, c'est le goût de la prostitution. Il m'est même pas de plaisir noble qui ne puisse être ramené à la Prostitution.¹⁷⁾

Ⅲ. 흡혈귀 혹은 지옥의 삶

Baudelaire가 19세때 알게 되었다고 하는 빨강 머리 거지 소녀는 기타를 키면서 라틴가를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 소녀를 소재로 쓴 시가 있다.

Blanche fille aux cheveux roux,
Dont la robe par ses trous
Laisse voir la pauvreté
Et la beauté,

Pour moi, poète chétif,
Ton jeune corps maladif,
Plein de tache de rousseur,
A sa douceur.¹⁸⁾

4행 14연으로 구성된 이 시는 거지 소녀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아직 독기라고는 전혀 배어들지 않는 상상 세계를 보여준다.

〈A une dame créole〉이란 제목의 Sonnet도 아직 소년 시절의 작품이어서 병든 꽃의 노래는 못된다.

Au Pays parfumé que le soleil caresse,
J'ai connu, sous un dais d'arbres tout empourprés
Et de palmiers d'où pleut sur les yeux la paresse,
Une dame créole aux charmes ignores.¹⁹⁾

그렇지만 Jeanne Duval에게 바쳐진 시편들은 몇 편을 제외하고 우리의 상상력에 충격을 주는 작품들이다.

Je t'adore à l'égal de la voute nocturne.

17) Baudelaire, op. cit., p. 649.

18) Ibid., pp. 83-84.

19) Ibid., p. 62.

Ô vase de tristesse, o grande taciturne,
et t'aime d'autant plus, belle, que tu me fuis,
Et que tu me parais, ornement de mes nuits,
Plus ironiquement accumuler les lieues
Qui séparent mes bras des immensités bleues.

Je m'avance à l'attaque, et je grimpe aux assauts,
Comme après un cadavre un choeur de vermisseaux,
Et je chéris, ô bête implacable et cruelle.
Jusqu'à cette froideur par où tu m'es plus belle!²⁰⁾

Stendhal도 《De L'amour》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상대를 접촉하고 모든 감각을 가지고 될 수 있는한 가까이 가서 느끼는 즐거움을 맛보는 것²¹⁾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Vase de tristesse', 'bête implacable et cruelle' 등의 이미지는 저주와 고통과 권태 등 비참한 사랑을 예비하는 것으로 그의 상상 세계에 있어 추하고 악한 그러나 순수성으로 빛어지는 꽃들을 피워내게 할 것임을 알게 해 준다. 그는 《Fusées》에서 사랑이란 고문이나 외과 수술과도 같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의 도취, 열광 등 소름끼치는 신기를 지적하기도 하며 자신의 주체를 완전히 잃어버려야만 하는 경기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는 사랑의 그지없는 쾌락(volupté)은 악(mal)에 있다고 단언하기에 이른다.²²⁾

20) Ibid., p. 27.

21) Stendhal, *De l'amour*, Librairie Armand Colin, 1959, p. 42.

22) Baudelaire, op. cit., pp. 651~652.

Je crois que j'ai déjà écrit dans mes notes que l'amour ressemblait fort à une torture ou à une opération chirurgicale mais cette idée peut être développée de la manière la plus amère. Quand même les deux amants seraient très épris et très pleins de désirs réciproques, l'un des deux, sera toujours plus calme ou moins possédé que l'autre. Celui-là, ou celle-là, c'est l'opérateur, ou le bourreau; l'autre, c'est le sujet, la victime. Entendez-vous ces soupirs, préludes d'une tragédie de déshonneur, ces gémissements, ces cris, ces râles? Qui ne les a proférés, qui ne les a irrésistiblement extorqués? Et que trouvez-vous de pire dans la question appliquée par le soigneux tortionnaires? Ces yeux le somnambule révoltés, ces membres dont les muscles jaillissent et se rodissent comme sous l'action d'une pile galvanique l'ivresse, le délire, l'opium, dans leurs plus furieux résultats, ne vous en donneront certes pas d'aussi affreux, d'aussi curieux exemples. Et le visage humain, qu'Ovide croyait façonné pour refléter les astres, le voilà qui ne parle plus qu'une expression de férocité folle, ou qui se détend dans une espèce de mort. Car, certes, je croirais faire un sacrilège en appliquant le mot: extase à cette sorte de décomposition.

—Épouvantable jeu ou il faut que l'un des joueurs perde le gouvernement de soi-même!

Une fois il fut demandé devant moi en quoi consistait le plus grand plaisir de l'amour. Quelqu'un répondit naturellement: à recevoir, —et un autre: à se donner.

악을 선택한 그는 자신을 유죄라고 선택하며 죄인인 그가 자기의 유일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것은 회한(remords)을 통해서이다. 행위를 죄로 만다는 것은 회한이며 후회가 없는 죄는 죄가 이 미 아니기 때문이다.²³⁾ 그의 악은 그러므로 자기가 저지르는 과오에 대해서 쾌락을 느끼는 것이다.²⁴⁾

(...) Notons ici le rapport du mal et de la poésie: lorsque, par-dessus le marché, la poésie prend le mal pour objet, les deux espèces de création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e rejoignent et se fondent, nous possédons, pour le coup, une fleur du mal. Mais la création délibérée du Mal, C'est-à-dire la faute, est acceptation et reconnaissance du Bien; elle lui rend hommage et, en se baptisant elle-même mauvaise, elle avoue qu'elle est relative et dérivée, que, sans le Bien, elle n'existerait pas. Elle concourt donc, par un détour, à glorifier la règle. Mieux encore, elle proclame qu'elle est néant. Puisque tout ce qui est sert le Bien, le Mal n'est pas toujours sûr. (...)²⁵⁾

그렇기는 하지만, 그가 의식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악 속에서의 의식에 의해서 선에 집착 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²⁶⁾ 그러므로 그는 로망티즘 시인들과는 전혀 다른 배덕적이고 이질적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다.

Tu mettrais l'univers entier dans ta ruelle,
Femme impure; L'ennui rend ton âme cruele.
Pour exercer tes dents à ce jeu singulier,
Il te faut chaque jour un coeur au râtelier.
Tes yeux, illuminés ainsi que des boutiques
Et des ifs flamboyants dans les fêtes publiques,
Usent insolemment d'un pouvoir emprunté,
Sans connaître jamais la loi de leur beauté.

—Celui-ci dit: plaisir d'orgueil. (—et celui-là: Volupté d'humilité! Tous ces orduriers parlaient comme l'*Imitation de J [ésus]-C[hrist]*. —Enfin il se trouva un impudent utopiste qui affirma que le plus grand plaisir de l'amour était de former des citoyens pour la patrie.

Moi, je dis: la volupté unique et suprême de l'amour gît dans la certude de faire le mal. —Et l'homme et la femme savent de naissance que dans le mal se trouve toute volupté.

23) Sartre, op. cit., pp. 102~103참조.

24) Ibid., p. 92. 참조.

25) Ibid., pp. 89~90.

26) Ibid., p. 82.

(...) C'est en faisant le Mal consciemment et *Par sa conscience dans le Mal* que Baudelaire donne son adhésion au Bien. (...)

Machine aveugle et sourde, en cruautés féconde!
Salutaire instrument, buveur du sang du monde,
Comment n'as-tu pas honte et comment n'as-tu pas
Devant tous les miroirs vu pâlir tes appas?
La grandeur de ce mal où tu te crois savante
Ne t'a donc jamais fait reculer d'épouvante,
Quand la nature, grande en ses desseins cachés,
De toi se sert, ô femme, ô reine des péchés,
-De toi, vil animal, -pour pétrir un génie?

Ô fangeuse grandeur! sublime ignominie!²⁷⁾

그렇다. 이 천한 짐승(Duval)으로 그는 그의 천재를 빚어낸 것이다. 감히 그녀를 '추악한 위대함'이거나 '숭고한 치욕'이라고 감탄을 내지를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끔찍한 연가는 성애를 미화시킨다거나 승화시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데 이바지하지 않는다.²⁸⁾ 차라리 그는 악을 선택했으므로 자기 징벌에 철두철미한 모습을 드러내 준다.

Nous aimons les femmes à proportion qu'elles nous sont plus étrangères. Aimer les femmes intelligentes est un plaisir de pédéraste. Ainsi la bestialité exclut la pédérastie.²⁹⁾

Pourquoi l'homme d'esprit aime les filles plus que les femmes du monde, malgré qu'elles soient également bêtes?— A trouver.³⁰⁾

이같은 경구는 나노라하는 사내들의 허위 의식을 은근히 밝혀내는 것이다. 자기 탐구의 논리로 따지자면, 그의 자기 징벌에의 성향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며, 매독에 걸린다거나 가장 천한 창녀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말한 것은 그 자신인 것이다.

La femme est le contraire du Dandy.
Donc elle doit faire horreuer.

27) Baudelaire, op. cit., pp. 27~28.

28) Sartre, op. cit., pp. 94~95참조.

(...) On l'a dit impuissant. Et sans doute la possession physique, trop proche du plaisir naturel, ne l'attirait pas particulièrement. (...) 그러나 그가 과연 성불구자였는지에 대한 논란은 많다. 金鵬九교수는 『보들레에르-평전·시세계』(文學과 知性社)에서 그가 성불구자가 아님을 주장한다. (p. 325).

29) Baudelaire, op. cit., p. 653.

30) Ibid., p. 689.

La femme a faim et veut manger. Soif, et elle veut boire.
 Elle est en rut et elle veut être foutue.
 Le beau mérite!
 La femme est *naturelle*, c'est-à-dire abominable.
 Aussi est-elle toujours vulgaire, c'est-à-dire le contraire du Dandy.³¹⁾

그러므로 여성은 영과 육을 구별할 줄을 모르며 짐승처럼 단순하기 짝이 없는 이유는 육체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다.³²⁾ 그러나 그는 이 천박함, 불결, 질병 등에 매혹된다.

(...)

Vice beaucoup plus grave, elle porte perruque,
 Tous ses beaux cheveux noirs ont fui sa blanche nuque;
 Ce qui n'empêche pas les baisers amoureux
 De pleuvoir sur son front plus pelé qu'un lépreux nuque:

Elle louche, et l'effet de ce regard étrange,
 Qu'ombragent des cils noirs plus longs que ceux d'un ange,
 Est tel que tous les yeux pour qui l'on s'est damné
 Ne valent pas pour moi son oeil juif et cerné.

Elle n'a que vingt ans; sa gorge-déjà basse
 Pend de chaque côté comme une calebasse,
 Et pourtant, me traînant chaque nuit sur son corps,
 Ainsi qu'un nouveau-né, je la tête et la mords-

Et bien qu'elle n'ait pas souvent même une obole
 Pour se frotter la chair et pour s'oindre l'épaule-
 Je la lèche en silence avec plus de ferveur.
 Que Madeleine en feu les deux pieds du Sauveur-

La pauvre Créature au plaisir essoufflée
 A de rauques hoguets la poitrine gonflée,
 Et je devine au bruit de son souffle brutal
 Qu'elle a souvent mordu le pain de l'Hôpital(...)³³⁾

이 비참한 창녀를 소재로 한 시는 창녀와 동류가 되어 스스로 조롱거리를 만들면서 추악한 관

31) Ibid., p. 677.

32) Ibid., p. 694참조.

33) Ibid., p. 203.

능의 세계를 이룩해 간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랑이란 마음으로, 창녀가 몸을 파는 것이나 시인이 정신(시)을 파는 것은 같은 것이며 하느님이 만인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므로 가장 큰 매음임을 주장한다. 하느님은 창녀처럼 만인에게 사랑의 공동 저장소이기 때문이다.

Qu'est-ce que l'amour?

Le besoin de sortir de soi.

L'homme est un animal adoreur.

Adorer, c'est se sacrifier et se prostituer.

Aussi tout amour est-il prostitution.

L'être le plus prostitué, c'est l'être par excellence, c'est Dieu, puisqu'il est l'ami suprême pour chaque individu, puisqu'il est le réservoir commun, inépuisable de l'amour.³⁴⁾

그의 시의 상상세계는 그가 사랑한 여성과 서로 사랑하는 세계가 아니다. 여성까지도 자연으로 보는 그에게 있어 그것은 상상력 자극제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Delacroix론에서 가시적인 세계는 모두 이미지와 기호들의 저장고이며, 상상력은 그것에 적당한 자리와 가치를 부여해야 될 오브제이며, 그것은 변형시켜야 될 일종의 양식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이 하느님이 만들어진 세계는 시인이 판독해야 될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³⁵⁾

Jeanne Duval에 바쳐진 시편들을 살펴보자.³⁶⁾

Toi qui, comme un coup de couteau,

Dans mon coeur plaintif es entrée;

Toi qui, forte comme un troupeau

De démons, vins, folle et parée,

De mon esprit humilié

Faire ton lit et ton domaine;

-Infâme à qui je suis lié

Comme le forçat à la chaîne,

Comme au jeu le joueur têtue,

34) Baudelaire, op. cit., p. 692.

35) M. Raymond, *De Baudelaire au surréalisme*, José Corti, 1940, pp. 21~22참조.

36) D. Rincé, *Baudelaire et la modernité poétiqu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4, p. 55.
Jeanne, 《ma seule distraction, mon seul plaisir, mon seul camarade》, dira-il, c'est l'amour charnel et l'amour luxure, l'amour fou et l'amour satanique, la jouissance et la violence à la fois que décrivent les poèmes du plus long des trois cycles féminins des *Fleurs du mal* (...)

Comme à la bouteille l'ivrogne,
Comme aux vermines la charogne,
-Maudite, maudite sois-tu!³⁷⁾

《Le Vampire》는 '저주받게 될 계집'에게 엄메인 처절한 사랑의 노래다. 이 사랑은 제목이 상징하고 있듯이, '슬픈 내 가슴에 비수처럼 파고 든 너'로 나타나는 흡혈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참담함이다. '저주받은 종노릇'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랑은 서로 사랑한다는 감정이 전혀 섞일 자리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그녀의 지배를 받는 노예 사랑이다. 그러므로 《De profundis clamavi》에서는 '그대의 연인을 갈구하며, 그대는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성'이라고 부르짖지만 심연(gouffre)에 빠져 허덕이며 미련한 잠에 잠길 수 있는 찬한 짐승의 팔자를 부러워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Le Serpent qui danse》에 나타나는 머리칼 냄새, 그 짜릿함은 바다 이미지로 이어져 푸른 물결이 일렁이고 드러누우면 한 척의 배로 흔들리는 상상 세계를 그녀에게서 느끼기도 한다. 이같은 감각, 특히 바다에 대한 그의 시적 상상력은 《Parfum exotique》, 《Le Chevelure》의 뛰어난 시들을 낳게 한다. Baudelaire 연구가들은 이 시편들이 현실 도피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상실한 모성의 회복을 꿈꾸는 고통에서 빚어진 상상 세계를 펼쳐보여 주는 것으로 보인다.

《Parfum exotique》의 시세계는 애인의 젓가슴 냄새에서 햇살 쏟아져 내리는 행복의 바닷가가, 섬나라가 역센 사내와 순진한 아낙들이... 그래서 마침내 바닷물결에 흔들리는 돛대들이 가득찬 항구가 떠오르고, 뱃사공의 노래 소리가 영혼 속에 뒤섞이는 세계를 창조해 내는 것이다.³⁸⁾

냄새→항구→뱃사공의 노래로 번져가는 연상기법은 공감작(synthésie) 현상이다.³⁹⁾ 같은 주제의 《Le Chevelure》에서는, 애인의 머리칼을 매만지면서 느끼는 관능을 그의 꿈의 상징적 비전을 표현해 내는데 목덜미까지 치렁거리는 물결→번민하는 아시아, 불타는 아프리카로→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물결→돛과 뱃사공→항구→오가는 배→배가 흔들어 주는 애무, 자장가→항구에 취해→꿈꾸는 오아시스로 이미지를 확장시켜서 4행 7연의 시를 완성하고 있다. 여기서 애인에 대한 저주거나 자기의 고통 등이 진술되고 있지 않지만, 사랑의 행위를 통해 상상력 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Aujourd'hui, il faut produire beaucoup; il faut donc aller vite ;-il faut donc se hâter lentement; il faut donc que tous les coups portent, et que pas une touche ne soit inutile.

Pour écrire vite, il faut avoir beaucoup pensé, -avoir trimballé un sujet avec soi, à la promenade, au bain, au restaurant, et presque chez sa maîtresse.⁴⁰⁾

젊은 문학도들에게 주는 그의 충고처럼 정부(maîtresse) 집에서도 시를 구상해야 한다고 그는 주

37) Baudelaire, op. cit., p. 33.

38) Ibid., pp. 25~26.

39) M. Raymond, op. cit., pp. 23~24 참조.

40) Baudelaire, *Oeuvres Complètes* II, Gallimard, 1976. p. 17.

장한다. 그런데 그가 향기나 냄새에 미쳐난 것은 어린 시절부터인데 그것은 다름아닌 그의 어머니의 냄새였다. 이 냄새가 그의 시학에 있어서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됨을 우리는 이미 살폈다.

(...) Le goût précoce des femme. Je confondais l'odeur de la fourrure avec l'odeur de la femme. Je me souviens... Enfin, j'aimais ma mère pour son élégance. J'étais donc un dandy précoce.⁴¹⁾

또한 그는 전적으로 후손이 없기를 바랐다. 이 절대적 불모성에 대한 찬미가 바로 그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인 것이다.⁴²⁾ 따라서 Duval과의 관계만해도 결국 의무로 남는 기형적인 연애 관계로 유지될 뿐이다. 그는 Duval과 정사 때 옷을 입도록 요구했다.⁴³⁾

그러므로 그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삶에 다름아니며, 그의 삶은 그의 증오의 대상이 된다. 그의 고통과 불만과 악덕은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인데, 그는 저주받은 자, 괴물, 반자연의 고독을 열망한다.⁴⁴⁾

그의 시의 상상 세계는 이미 지옥의 삶에 있다.

IV. 상승 혹은 떠남의 시학

Baudelaire는 Jeanne Duval과는 대극을 이루는 흰 비너스(Vénus blanche)로 불리워지는 Madarne Sabatier를 수호천사(l'Ange gardien), 뮤즈, 마돈나로 떠받들며 천상을 지향하는 정신적인 사랑을 노래함으로써 지옥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Le flambeau vivant》에서는 '빛에 넘치는 눈을 한 형제가 타오르는 불꽃을 내 눈 속에 흔들 어 주며 모든 함정과 중죄에서 건져내어 아름다움(Beau)의 길로 나를 이끌어 준다'고 '매혹의 눈'을 노래한다.

Me sauvant de tout piège et de tout péché grave,
Ils conduisent mes pas dans la route du Beau;
Ils sont mes serviteurs et je suis leur esclave;
Tout mon être obéit à ce vivant flambeau.⁴⁵⁾

뿐만아니라 《Que diras-tu ce soir...》에서는 '거룩한 눈길에 꽃피어난 더없이 아름답고, 착하고 사랑스런 여인'이 시들어버린 내 마음에게, 나를 사랑하는 당신은 오로지 아름다움만을 사랑 하라고 말한다고 노래한다. 마지막 연에서는 그녀가 그에게 '나는 수호천사, 뮤즈, 마돈나'라고

41) Baudelaire, *Ceuvres Complètes* I, p. 661.

42) Sartre, op. cit., p. 134참조.

43) Ibid., p. 145참조.

44) Ibid., p. 146참조.

45) Baudelaire, *Ceuvres Complètes* I, p. 43.

진술하는데 짝사랑의 숭고한 상상 세계를 형성함을 볼 수 있다.

Parfois il parle et dit: 《Je suis belle, et j'ordonne
Que pour l'amour de moi vous n'aimiez que le Beau;
Je suis l'Ange gardien, la Muse et la Madone.》⁴⁶⁾

성애나 쾌락이 배제되고, 저 혼자 사랑의 우주를 형성하면서, 자기를 초월하면서 아울러 자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신주의에의 끈질긴 집념에 그는 사로잡힌다. 그것은 G. Bachelard가 말하는 시적 몽상의 세계를 사는 것이다.⁴⁷⁾

Ce qui est créé par l'esprit est plus vivant que la matière.⁴⁸⁾

Dans certains états de l'âme presque surnaturels, la profondeur de la vie se révèle tout entière dans le spectacle, si ordinaire qu'il soit, qu'on a sous les yeux. Il en devient le symbole.⁴⁹⁾

정신적인 것의 침잠은 그의 냉혹성으로 나타난다. Sartre의 분석에 따르면 여자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데는 그에게 전혀 위험 부담이 없다. 애인은 그에게 절대적 타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병든 플라토니즘으로 욕망의 고독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다. 그 욕망은 전적으로 불모의 것이어서 애인에게는 어떤 동요도 일어나지 않게 해 준다. 오로지 자기 자신과의 관계만을 갖는 것이다. 하나의 얼음으로 된 벽과 정사를 갖는 것이다. 얼음인 채로 남아 있지 못할 경우 지나치게 육감적인 육체를 노출시켰으므로 Sabatier는 하룻밤만에 애인을 잃어버리게 된다. 냉정한 여인과의 성애는 분명히 신성 모독이고 선에게 강제된 오점이지만 그 선은 스스로를 순수하고 순결한 상태로 남아 있도록 한다. 그것은 기억에도 효력도 남지 않는 불모의 하얀 과오이다. 또한 그와 동시에 율법의 변하지 않을 영원성이거나 죄인의 영원한 젊음과 영원한 임의성을 구현해 준다. 그렇지만 그 사랑의 하얀 마술(magie blanche)이 검은 마술(magie noire)를 배격하고 있지는 못하다. 근원적으로 냉정함에 의한 불모화에 다름없는 냉혹성은 결국 죽음에서 진정한

46) Ibid., p. 43.

47) G. Bachelard, *La poétique de la rêverie*, PUF 1960, p.137참조.

(...) Quel relief dans notre langage qu'une image poétique: si nous pouvions parler en ce haut langage, monter avec le poète dans cette solitude de l'être parlant qui donne un sens nouveau aux mots de la tribu, nous serions dans un règne où n'entre pas l'homme actif pour qui l'homme de la rêverie 《n'est qu'un rêveur》 et pour qui le monde de la rêverie 《n'est qu'un rêve》.

Qu'important pour nous, philosophe du songe, les démentis de l'homme retrouvant, après son rêve, les objets et les hommes! (...)

48) Baudelaire, op. cit., p. 649.

49) Ibid., p. 659.

풍토를 발견하게 된다. 생명의 부재 혹은 생명의 파괴라는 양 극단 사이에 그의 정신은 머물러 있다.⁵⁰⁾

Quand chez les débauchés l'aube blanche et vermeille
 Entre en société de l'Idéal rongeur,
 Par l'opération d'un mystère vengeur
 Dans la brute assoupie un ange se réveille.⁵¹⁾

정신적인 삶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런 삶을 창조해야 가능하다는 직관을 그는 지니고 있다.⁵²⁾ 그의 고귀함과 인간적인 위대성은 되는대로 내버려 두는 데 대한 혐오감에서 연유하는 것인데, 무기력·포기·긴장이 풀린 상태 등은 용서받지 못할 파오들로 느낀다. 그래서 자신에게 꿀레 씌우기, 다루기 쉽게 자신을 억제하기, 자신에게 정신을 집중하기가 필요하다.⁵³⁾

《L'Aube spirituelle》의 시 세계는 이같은 그의 정신 상태의 소산이다. 《Le flacon》에서는 '어떤 물건도 꿰뚫고 스며 나오는 강렬한 향기'로 자기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마련한 것이 아닌 천사(Sabatier)가 마련한 사랑의 독약임을, 그래서 자기를 쬐먹는 액체이며, 자기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능까지 소유한 사랑의 찬가를 노래한다.⁵⁴⁾

Baudelaire가 이 권태로운 세상에서의 삶을 하직하고 다른 곳을 지향하는 떠남의 시학을 세우는 것은 Marie Daubrun에게 바쳐진 몇 편의 시들에서이다.

《Le poison》, 《Ciel brouillé》, 《Le chat》 등에 나타나는 눈동자의 이미지는 푸른 빛, 잿빛, 초록빛 등 신비로운 색깔로 드러난다.

Tout cela ne vaut pas le poison qui découle
 De tes yeux, de tes yeux verts,
 Lacs où mon âme tremble et se voit à l'envers...
 Mes songes viennent en foule
 Pour se désaltérer à ces gouffres amers.⁵⁵⁾

《Le poison》에 나타나는 '푸른 눈'은, 술과 아편이 무궁한 것을 더 확장하고, 무한을 다시 늘

50) Sartre, op. cit., pp.147~167참조.

51) Baudelaire, op. cit., p.46.

52) Sartre, op. cit., p.169참조.

53) Idem.

54) Baudelaire, op. cit., pp.47~48참조.

《Le flacon》속에 존재하는 냄새(사랑)의 모습을 절묘하게 표현해 낸 다음 귀절을 보라.

Mille pensers dormaient, chrysalides funèbres,
 Frémissant doucement dans les lourdes ténèbres,
 Qui dégagent leur aile et prennent leur essor,
 Teintés d'azur, glacés de rose, lamés d'or.

55) Ibid., p.49.

이고, 시간을 더 깊이 깊게 하고, 쾌락을 파고들지만, 나를 떨리게 하고 쓴 물에 목을 축이려 내 꿈을 빼지어 가게 하는 것이다. 그 눈은 푸른 색깔을 띤 물이 피어 있는 것으로 이 시에서는 호수 이미지로 표현되지만 더 확장되면 바다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 연의 침(salive)도 물의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그를 아무런 회한도 없이 망각 속으로 잠기어 들게 하고, 죽음의 강변으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다.

《Ciel brouillé》에 나타난 눈의 이미지는 아지랭이가 아른거리는 것같은 신비로운 눈으로, 앞서 말한 푸른 빛이거나 잿빛이거나, 초록빛이 도는 눈인데 때로 정답고 때로 꿈꾸는 듯 하며 때로는 매정하기도 한 무심하고 창백한 하늘이 되비쳐져서 얼음과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쾌락을 주는 것이다.

《Le caht》의 눈은, 파리한 눈동자에 이는 반짝이는 불이 있어 쳐다 보며는 깜짝 놀라게 해 주는 눈으로 나타나는데, 밝은 신호등으로 그를 바라보는 눈동자의 이미지로 그의 내면에서 그가 보는 데에서 비로소 획득된다. 이 눈의 이미지는 확장되어 육감적이면서도 정신적인 젓가슴의 이미지로도 나타난다. 《Le beau navire》의 시 세계가 그것이다. 아름다운 배로 상징되는 애인은 어린 티와 성숙한 티가 한데 어울린 요염한 모습으로, 걸가는 모습을 바다로 나가는 배에 비유해 그려내고 있다.

Quand tu vas balayant l'air de ta jupe large,
Tu fais l'effet d'un beau vaisseau qui prend le large,
Chargé de toile, et va roulant
Suivant un rythme doux, et paresseux, et lent.⁵⁶⁾

이 애인이 입은 옷은 물결 무늬 옷으로 바다로 나간 배가 물결에 흔들리듯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옷 속으로 볼록하게 솟아난 젓가슴에는 분홍빛 꼭지로 무장해서 도전하는 방패가 있지만, 그것은 달콤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찬장이어서 거기엔 갖가지 술과 향수와 음료수 등 정신과 마음을 황홀하게 해 줄 것들이 가득 차 있다.

56) Ibid., p. 52.

Baudelaire는 배, 특히 물결에 움직이는 배를 바라다 보는데서 무한과 신비로운 즐거움 그리고 선을 찾는다고 Fusée에 쓰고 있다. Ibid., pp. 663~664참조.

Je crois que le charme infini et mystérieux qui gît dans la contemplation d'un navire, et surtout d'un navire en mouvement, tient, dans le premier cas, à la régularité et à la symétrie qui sont un des besoins primordiaux de l'esprit humain, au même degré que la complication et l'harmonie, -et, dans le second cas, à la multiplication successive et à la génération de toutes les courbes et figures imaginations opérées dans l'espace par les éléments réels de l'objet.

L'idée poétique qui se dégage de cette opération du mouvement dans les lignes est l'hypothèse d'un être vaste, immense, compliqué, mais eurythmique, d'un animal plein de génie, souffrant et soupirant tous les soupirs et toutes les ambitions humaines.

Boucliers provocants, armés de points roses!
Armoir à doux secrets, pleine de bonnes choses,
De vins de parfums, de liqueurs
Qui feraient délirer les cerveaux et les coeurs!⁵⁷⁾

이같은 애인의 눈을 통한 그의 상상 세계는 관능과 쾌락에만 있지 않다. 《L'Irréparable》에서는 해묵은 회한(le long Remords)이 우리를 잡아먹는 원수로서 그를 빈사상태로 만들어 놓았다고 돌이킬 수 없는 회한을 노래한다. 회한은 저주받은 이빨로 그를 잡아 먹고 있다면서, 칠혹같이 어두운 하늘을 볼뻔할 수는 없는지, 아침도 저녁도 없이 별과 번개도 없이 송진보다 더 짙은 저 어둠을 찢어버릴 수는 없는지를 연인에게 묻는다.

Peut-on illuminer un ciel bourbeux et noir?
Peut-on déchirer des ténèbres
Plus denses que la poix, sans matin et sans soir,
Sans astres, sans éclairs funèbres?
Peut-on Illuminer un ciel bourbeux et noir?

《Causerie》에서 그의 애인은 ‘맑고 장미빛 아름다운 가을 하늘’로 비유되는데, 그것은 ‘아름다움, 가혹한 채찍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향연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두 눈이 그 (누더기)를 깨끗이 불태워 버리기를 바라는 눈’으로도 나타난다. 그렇지만 초록빛으로 빛나는 눈을 가진 이 애인, Marie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Chant d'automne》에서는 ‘덧없는 인생, 무덤이 기다리고 있음’을 노래하면서 인생의 만추를 깨닫고 작열하던 하얀 여름을 아쉬워하면서 그녀의 무릎 위에 이마 파묻고 만추의 노랑고 다사로운 햇살을 맛보게 해 달라고 간청한다.⁵⁸⁾ 그는 이내 죽음으로 상징되고 있는 ‘차가운 어둠’ 속으로 빠져갈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이다.

J'écoute en frémissant chaque bûche qui tombe;
L'échafaud qu'on bâtit n'a pas d'écho plus sourd.
Mon esprit est pareil à la tour qui succombe
Sous les coups du bélier infatigable et lourd.⁵⁹⁾

그렇지만 그가 애인을 증오할 때의 상상 세계는 《A une Madone》에서 처럼 섬뜩한 이미지들로 가득하다.

57) Ibid., p.52.

58) Ibid., p.57.

59) Idem.

Enfin, pour compléter ton rôle de Marie,
 Et pour mêler l'amour avec la barbarie,
 Volupté noire! des sept Péchés capitaux,
 Bourreau plein de remords, je ferai sept Couteaux
 Bien affilés, et, comme un jongleur insensible,
 Prenant le plus profond de ton amour pour cible,
 Je les planterai tous dans ton Coeur pantelant,
 Dans ton Coeur sanglotant, dans ton Coeur ruisselant!⁶⁰⁾

마침내 그는 이 세상을 벗어나 그가 꿈꾸는 곳으로의 떠남을 깊숙이 꿈꾼다.

(...) il a eu de naissance, en une époque déterministe, l'intuition que la vie spirituelle n'est pas
 donné mais qu'elle se fait; (...) ⁶¹⁾

그가 떠남을 꿈꾸는 것은 전혀 정신적인 것이다. 그것은 《L'invitation au voyage》의 시 세계를
 살핌으로도 충분하다.

Mon enfant, ma soeur,
 Songe à la douceur
 D'aller là-bas vivre ensemble!
 Aimer à loisir,
 Aimer et mourir
 Au pays qui te ressemble!
 Les soleils mouillés
 De ces ciels brouillés
 Pour mon esprit ont les charmes
 Si mystérieux
 De tes tradîtres yeux,
 Brillant à travers leurs larmes.

Là, tout n'est qu'ordre et beauté,
 Luxe, calme et volupté.⁶²⁾

그가 떠나고자 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저기는 질서, 아름다움, 사치, 고요함, 쾌락이 있
 는 곳이다. 그의 정신적인 풍경으로 그곳은 잃어버린 낙원—그의 어린 날이거나 전생이거나 더

60) Ibid., p.59.

61) Sartre, op. cit., p.169.

62) Baudelaire, op. cit., p.53.

거슬러가면 시원의 낙원인데, mon enfant, ma soeur로 불리워지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 꿈꾸는 녀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호린 하늘, 젖은 햇빛, 눈물’의 이미지들과 《Le chevelure》의 이미지들과 이어져서 여행→죽음의 이미지로 나타남을 본다. 물의 이미지는 모성이다. 아무리 그의 배가 바다 위를 미끄러지며 돛이 어떤 신의 존재라도 확인하려는 듯이 생생한 빈 하늘을 향해 시간과 공간의 순수성을 향해 팽팽히 긴장되어 있다⁶³⁾ 하더라도, 배는 항상 지옥을 향하고 있고, 행복의 뱃사공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죽음이란 결코 끝날 수 없는 여행이며 위험스런 조망인 것이다.⁶⁴⁾

Des meubres luisants,
 Polis par les ans,
 Décoreraient notre chambres;
 Les plus rares fleurs
 Mêlant leurs odeurs
 Aux vagues senteurs de l'ambre
 Les riches plafonds,
 Les miroirs profonds,
 La splendeur orientale,
 Tout y parlerait
 A l'âme en secret
 Sa douce langue natale.⁶⁵⁾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는 여관이나 전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꿈꾸는 집이거나 가구 등에 대한 풍요로운 상상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⁶⁶⁾ 집은 인간에게 최초의 삶의 공간이며 모성이다.⁶⁷⁾

Voir sur ces canaux
 Dormir ces vaisseaux
 Dont l'humeur est vagabonde: (...)⁶⁸⁾

63) J.-P. Richard, *Poésie et profondeur*, Seuil, 1955, p.154.

64) G. Bachelard, *L'eau et les rêves*, José Corti, 1942. pp.103~109참조.

65) Baudelaire, op. cit., p.53.

66) 특히 산문시 《La chambre double》가 뛰어나지만 제목없이 Les Fleurs du mal에 실린 10행 시(XCIX)를 뽑을 수 있다. (Baudelaire, op. cit., p.99)

Je n'ai pas oublié, voisine de la ville,
 Notre blanche maison, petite mais tranquille; (...)

67) G. Bachelard, *La poétique de l'espace*, PUF, 1957, 집과 가구들에 대해 적은 II장~III장 참조 (pp.23~91)

68) Baudelaire, op. cit., pp.53~54.

그가 떠나고자 하는 그곳——저무는 햇살, 보라빛 황금빛으로 들과 운하와 온 도시가 질서(ordre), 아름다움(beauté), 사치(luxe), 고요함(calme), 쾌락(volupté) 속에 잠든다. refrain은 예술작품에 대한 완벽한 정의로 André Gide는 보았다.⁶⁹⁾

이 시의 상상 세계는, 이 시가 Marie Daubrun에게 바쳐졌다 하지만, 지옥인 이승을 떠나고자 하는 그가 꿈꾸는 정신 세계를 내보여준다.

결국 그가 Madame Sabatier를 통한 수직적 이상 세계거나 Marie Daurun을 통한 수평적 지상의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그의 시에 넓은 상상 세계를 구축케한 것으로 이해된다.

V. 맺 음 말

우리는 Baudelaire가 지옥의 연인인 Jeanne Duval에게 바친 시편들에서 육화된 사랑의 세계, 천상의 연인인 Madame Sabatier에게 바친 시편들에서 영적인 사랑의 세계 그리고 지상의 연인인 Marie Daubrun에게 바쳐진 시편들에서 떠남의 세계를 살폈다. 그렇지만 이같이 다양하게 보이는 시 세계는 이 세상의 삶을 지옥으로 파악한 그에게 있어 잃어버린 낙원을 찾고자 하는 끈질긴 모험이며 추구로 집약된다 하겠다. 이 과정은 그가 사랑한 여인들을 통한 눈부신 고통의 상상 세계를 이룩해 낸 것이지만, 그가 자아(교뇌, 권태, 회한 따위)와의 싸움과 타자(신, 시간 따위)와의 싸움에서 획득하게 된 것으로 우리에게는 이해된다.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간조건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시지포스처럼 잘 싸웠지만 패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패배는 우리의 패배이면서 우리가 싸우고 있고, 또한 싸워야 될 패배이다.

그가 아무리 영육의 이원 세계를, 그 모순과 갈등을 갖가지 사랑을 통해 조화시키려고 하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운 행복으로 나타났음을 보았다. 그의 상상 세계의 뿌리는 이미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어머니의 향기로 회복과 초월을 꿈꾸는 '떠남'에 깊숙이 박혀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Le chevelure》에서 드러나는 머리칼의 이미지가 그것인데, 그것은 어머니의 향기로서 그에게 있어 모성의 회복 그리고 초월하고자 하는 거대한 상상 세계를 이루고 있다.

이 향기(Parfum)는 마침내 《L'invitation au voyage》에서 눈물(larmes)의 이미지로 드러난다. 그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자 하는 《떠남의 시학》을 이룩한다.

69) Ibid., p. 930.

(...) Dans le refrain de *l'Invitation* André Gide voyait (la parfaite définition de l'oeuvre d'art):

《Je sais à part chacun de ces mots, j'admire ensuite la guirlande qu'ils forment et l'effet de leur conjuration; Car aucun d'eux n'est inutile et chacun d'eux est exactement à sa place.

Volontiers je les prendrai pour titres des successifs chapitres d'un traité d'esthétique:

-ordre(Logique, disposition raisonnable des parties);

-Beauté(Ligne, élan, profil de l'oeuvre);

-calme(Tranquillisation du tumulte);

-Volupté(Sensualité, charme adorable de la matière, attrait.)

Mon enfant, ma soeur,
Songe à la douceur
D'aller là-bas vivre ensemble!
Aimer à loisir
Aimer et mourir
Au pays qui te ressemble(...)⁷⁰⁾

이 떠남의 시 세계는 'Aimer et mourir'의 상상 세계에서 열린다. 거기에는 질서(ordre), 아름다움(beauté), 사치(luxe) 그리고 쾌락(volupté)이 자리한다. 그것은 그의 시(*Les Fleurs du mal*)에 있어, Jeanne Duval, Madame Sabatier, Marie Daubrun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인들을 통해 이룩한 그가 살고 꿈꾼 고통에 찬 사랑의 상상 세계이다.

70) Ibid., p. 53.

Résumé

Le monde imaginaire de la poésie de Baudelaire (Ⅱ)

Moon Choong-sung

Sans distinction du temps et d'endroit, l'amour entre l'homme et la femme a été un problème le plus important de l'Homme. De même chez Baudelaire, ce problème est un thème qu'il passe sa vie à chercher.

Cependant, ce que nous voulons traiter dans cette dissertation, ce n'est pas de l'amour de Baudelaire, mais un autre par lequel il développa sa puissance imaginaire poétique.

Son amour nous apparaît encore dualiste, l'amour d'âme et de physique qui nous comprendrons être le monde imaginaire pour une discipline moins d'intelligence que de sensibilité. Cette dualité, ça consiste, comme nous venons de parler tout de suite ci-dessus, en l'amour d'âme et de physique dont les représentants sont Mme Sabatier, Marie Daubrun (celui-là) et Jeanne Duval (celui-ci). Baudelaire les chercha ensemble, mais il a devenu de plus en plus un homme plus tragique à cause de l'angoisse et le désespoir dûs à l'impossibilité, au contraire de son désir, de l'harmonie de ces deux mondes.

Nous pouvons constater que, bien qu'il ait aimé plusieurs femmes, l'amour établi dans son âme est un.

Enfin, il nous évoque l'impossibilité du désir à être un, c'est-à-dire, l'amour vers la perfection que l'homme imparfait cherche.

En dépit de tout cela, il créa un monde de la poésie dans lequel l'ordre, la beauté, le luxe et la volupté existent exclusivement, c'est-à-dire, il nous donne un monde imaginaire qui remplit notre vie douloureuse de rêves abondants.